

꼭 팀장이 말하는

전시 기획



곽수진 지음



TSCP

무엇인가 정리를 해야겠다.

그리고 나는 허허벌판에 홀로 서 있다.

2년 전 그랬다. 그래서 책을 쓰기로 했다. 반년 정도를 ‘놀이’
그동안 과학 전시기획에 대한 나의 생각과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
했다. 타의반 자의반 다시 일을 하게 되었고 글쓰기로 한동안 나
는 나의 하루를 시작했다.

디자인 회사에서 전시기획 일을 배우지 않았다. 과학 대중화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과 미디어 회사에서 전시기획 일을 맡게 되
고 자연스럽게 집중하게 되었다. 그래서인지 나는 전시기획이 전
시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는지도
모른다. 콘텐츠 기획이 없는 디자인이 과학전시에서 만큼은 있
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일을 하면서 전시기획을 주제로 한 책을
찾기가 거의 불가능 했다. 대부분 전시 디자이너 입장의 책 한 장
또는 한 문단 정도가 전시기획을 설명해주거나 언급하고 있었다.

국내에 있는 전시 디자인 관련 서적은 외국의 것을 번역한 것이 많았다.

나와 같이 일했던 동료 중에 전시기획 일을 사회생활의 시작으로 했던 동료가 많았다. 전시기획에 대한 기본서 같은 책이 있었다면 팀장이었던 나에게도 팀원인 그들에게도 조금 덜 힘들게 기획 일을 같이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었다.

이 책이 전시기획 뿐 아니라 다른 분야의 기획 일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기획일’ 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가벼운 입문서가 되었으면 한다. 또 과학전시를 실제 구현하는 전시 디자이너에게 과학 전시기획자를 이해하고 의사소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책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책은 나와 함께 일한 의뢰인, 동료들의 경험과 고뇌를 내가 대신 적어놓은 것이다. 나를 전시기획자로 일하게 해 준 의뢰인

과 동료들에게 감사드린다.

두서없는 원고인지라 읽어 내기 힘들었을 텐데도 의기에 찬 제자가 기죽지 않고 나아가게 하시려고 목차며 원고의 방향에 대해 꼼꼼히 의견을 달아주시는 수고를 마다치 않으신 김탁환 선생님께 고개 숙여 감사드리고 싶다.

우리나라 전시 디자인 분야 서적의 척박한 현실을 알려주고 미숙한 나의 원고가 책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셨던 장성환(DS203) 대표님, 문지숙(안그라픽스) 실장님, 최재훈(경제를 넘어)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원고가 책이 되게 한데는 최윤정 님의 노고가 가장 컸다. 수개월간 인내심으로 원고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원고를 검토하고 나와 토론하고 게으른 나의 일정을 챙겨주었던 최윤정 님에게 감사드린다. 복잡한 심경 속에서도 재촉하는 나를 무던하게 넘기며 읽기 편하고 멋스러운 책으로 디자인해 준 채홍석 님과 재치 있는 일러스트를 그려주신 임성훈 작가님에게 감사드린다.

당초 계획은 김소영 씨와 같이 책을 쓰려고 했었다. 설립한지 얼마 되지 않은 회사의 현업이 너무 많아 이번 책에는 몇 개의 에피소드만 김소영 씨의 글을 담게 되어 아쉽고 미안하다. 그리고 항상 고맙다.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 같다며 스트레스 받으며 원고를 읽어준 민지영 씨와 정경미 씨, 출판사 등록부터 온갖 복잡한 출판 업무를 맡아 해결해 주신 박정미 팀장님께 감사드린다.

이 책은 현재 진행중이다. 기획 부분만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지 전시 연출 방법론이나 체험물 개발 프로세스, 전시 설치 현장에서 세세한 시행착오와 해결책의 기술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읽어주길 부탁드립니다.

2014년 5월

곽수진